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커뮤니티 양상 비교: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경민** · 박준영***

국문초록

음식 실천은 국외 이주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음식 및 커뮤니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대상인 유학생, 특히 국내에서 중국 출신 다음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유학생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식 실천이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비교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경우에는 종교적 요인에 따라 음식 실천에 제한이 있었지만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음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음식 모임을 외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베트남

*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SNUAC-2019-002)과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RF-2019S1A2A3099176)을 받아 수행되었다. 본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nyaongi88@snu.ac.kr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disciple0411@snu.ac.kr

유학생의 음식 모임은 기존에 구축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의의가 소속감과 서로간의 유대 및 결속을(재)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음식 실천은 각 커뮤니티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는 재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단절성을 보인 반면,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음식의 실천이 이주 커뮤니티의 형성뿐만 아니라 지속 및 정착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음식, 동남아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 음식 실천

I. 서론

1. 들어가며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과 사물의 초국적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흐름은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제 이주 현상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 경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디아스포라나 초국가주의와 같은 이주 관련 연구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음식은 이주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Gabaccia 1998).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음식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유대와 결속을 돕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도구로도 활용되어 왔다. 이주 연구에서 특정 이주 집단의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실천을 탐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집단의 거주국 생활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

는 데까지 연결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주자와 음식을 둘러싼 연구들은 거주국의 음식 문화로부터 겪는 어려움 및 갈등, 그리고 출신국의 음식 문화 유지 활동이나 양국의 음식이 뒤섞이며 나타나는 문화 접변 현상 등에 주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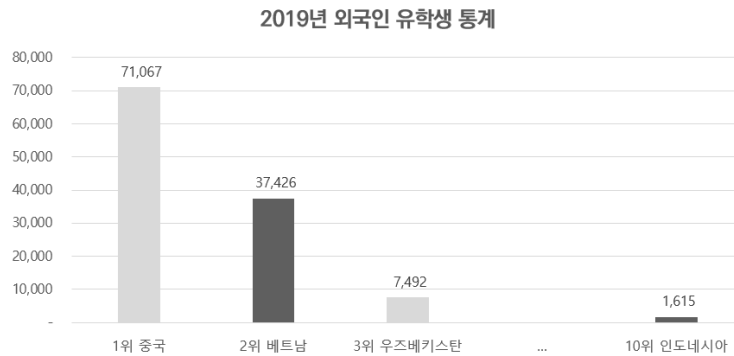
음식과 이주 관련 연구에서 주 대상은 가족 단위 집단이나 이주노동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외국 유학생은 국내외 이주와 음식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주 집단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보았을 때 이는 이주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국내 정착 외국인은 2018년 기준 2,367,607명이며(법무부 2018), 이 중 유학생은 160,670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2010년 87,480명이던 유학생 수는 8년 후인 2018년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유학생 증가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특히 그 중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9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37,418명으로 중국 출신 유학생의 뒤를 이어 국내 유학생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은 1,613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가 많다(교육부 2019)¹⁾.

이처럼 국내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의 빠른 증가는 제도의 변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및 투자 증가, 문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한국 인지도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2016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로 변경하여 인증을 받고 불법 체류율이 낮은 교육기관에는

1) 교육부. 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9011>

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 간소화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등 대학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 투자와 생산기지 이전 역시 2000년대 초반의 의류, 경공업 중심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기, 전자산업으로 확장되었다(구양미 2017). 이러한 기업 투자 및 이전과 맞물려 지역 내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강좌와 한국어 학과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음 역시 확인되며(응웬 티 레나 2014) 국내 유학생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2019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나타난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출처: 교육부.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II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와 같이 한국으로의 유학생 러시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가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송채수 2018; 최승은 2019; 오세경·김영순 2019). 그러나 외국 유학생이 국내 전체 이주자 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유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이들 역시 다른 이주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거주국 사회의 특정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만의 특수한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는 이주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국내의 외국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국내 유학생 중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중국 유학생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최근 급증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대상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저자 두 명은 현재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연구 장소로 삼고, 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합친 전체 유학생의 수는 2,276명이며 그 중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65명,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수는 52명이다.

<표 1> 2019 서울대학교 유학생 통계

순위	국가명	총 유학생 수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1	중국	645	438	207
2	미국	147	79	68
3	캐나다	74	53	21
4	프랑스	70	9	61
5	독일	69	19	50
6	러시아	65	10	45
	베트남	65	48	17
7	몽골	63	44	19
8	대만	61	19	42
9	일본	56	20	36
	말레이시아	56	18	38
10	인도네시아	52	41	11

출처: 2019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전체 유학생 수만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의 순위는 각각 6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치라 볼 수 없지만,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세분화 했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위과정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비율은 각각 73.8%와 78.8%로 이는 전체 유학생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67.9%)이나 미국(53.7%) 또는 캐나다(71.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학위과정은 대학과 대학원을, 비학위과정은 교환/방문/어학연수/기타연수를 포함하는데 평균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간의 비학위과정에 비해 학위과정은 최소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적 적응과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들은 서울대학교 내 유학생 중에서도 학위과정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들에 주목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체류 기간이 짧은 비학위과정 유학생 보다는 장기간 한국에 머물며 생활하는 비학위과정 비율이 높은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음식 실천 양상과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 내의 이주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학생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위과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남아시아의 두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음식 실천이 유학생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학생 개인 및 단체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의 대표 방식인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활용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진은 총 15명의 유학생(인도네시아 8명, 베트남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 참고).

인도네시아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장소는 주로 교내 식당이나 외국인 기숙사에서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심층 인터뷰 이외에도 음식 관련 모임에 연구자가 직접 참석하는 등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었다(<표 2> 참고).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섞어가면서 진행하였는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터뷰를 한국어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학생들과의 인터뷰 역시 교내 식당이나 유학생 기숙사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녹취 후 전사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특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A~O까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 명단

이름	성별	나이	학과	종교	한국 거주기간	인터뷰 날짜	비고
인도네시아 유학생							
A	남	20	재료공학과	이슬람	2년	19/10/18	현 서울대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회장
B	여	25	인지과학	이슬람	2년 5개월	19/11/15	
C	여	26	보건정책 관리학과	이슬람	1년 4개월	19/11/18	
D	여	20	식품영양학과	이슬람	3개월	19/11/19	교환학생
E	여	31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슬람	4개월	19/12/29	
F	남	37	기술경영 경제정책(협동)	힌두	4개월	20/01/05	
G	남	30	국제IT정책 프로그램(ITPP)	이슬람	4개월	20/01/05	
H	남	39	기술경영 경제정책(협동)	이슬람	3년	20/01/05	
베트남 유학생							
I	여	28	행정학과		3년	19/10/26	
J	여	29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3년	19/11/14	
K	여	2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5개월	19/11/14	학부생
L	여	25	국어국문학과		3개월	19/12/11	
M	남	20	경영대학		3개월	19/12/11	학부생
N	남	31	지구환경과학부		2년	19/12/11	
O	남	34	환경대학원		6년	19/12/11	현 서울대 베트남 유학생회 회장

<표 3> 참여 관찰

순서	제목	날짜	성격	참여 인원	장소
1	기숙사 축제(한울제) 국제 음식전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부스 관람	2019/ 10/01	소모임	약 7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2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 모임	2019/ 11/09	전체 모임	약 30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3	서울(명동) 인도네시아 식당 식사	2019/ 12/29	소모임	6명	Bakso Bejo Korea(서울 명동 위치)
4	인도네시아 유학생 기숙사 모임	2020/ 01/05	소모임	4명	서울대학교 기숙사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 커뮤니티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 형성과 유지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이주 이후 이주자 커뮤니티의 형성과 지속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 음식을 주목한 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다음, 국내에서 이주 커뮤니티와 음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이주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이주 집단인 외국인 유학생의 음식 활동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1. 음식과 커뮤니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음식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음식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 개인 또는 집단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발전해 왔다. 인간과 사물의 경계를 넘는 이동이 일상화된 글로벌하면서도 초국가적인 작금의 세계에서는 다른 집단과 나를 구별해줄 수 있는 분별적 요소로서 음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어쩌면 음식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와 줄곧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주와 음식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국가의 사람들이 접촉, 교류,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한 음식이나 음식과 관련된 규칙과 관습, 기술들이 전파나 확산되는 양상에 주목하였으며 또한 서로 다른 음식들이 뒤섞이는 혼성화 혹은 혼종(creolization or hybridization)의 사례들도 함께 이목을 끌었다(Gabaccia 1998). 특정 문화의 음식이 주도적으로 여러 국가에 전파되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맥도날드화(Ritzer 1993)’ 같은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은 약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재료와 레시피가 탄생하는 글로벌화(globalized)된 음식들로 인해 다문화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와 음식문화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식과 관련된 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 등 주로 적응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더욱 복잡해져감으로서 이후에는 음식문화의 변화와 세분화 또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그 한 예로 더글라스(Mary Douglas 1984)는 그의 저작 『사회적 규범에 따른 음식(Food in the Social Order)』에서 미국 내 발생하고 있는 음식과 축제,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후 다양한 미국 문화 속에서 소수 민족들이 그들만의 음식문화와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연구들이 뒤를 잇게 되었다. 특히 브라운과 머셀(Linda Keller Brown & Kay Mussell 1984)

의 『미국에서의 민족적 지역적 음식습관(Ethnic and Regional Foodways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저서는 민족 정체성과 음식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주 연구에서 음식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서현정 2001: 12-13에서 재인용).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하며 이를 계속해서 지속 및 유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향수 또는 기억의 실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외부 집단과 경계를 유지하면서 차이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정치’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체성과 ‘차이의 징표(a marker of difference)(Abbotts 2016: 115)’로서의 음식은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we are what we eat)(Gabaccia 1998)”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주자 커뮤니티의 음식 관련 활동과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은 초기의 ‘동화’와 ‘적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와 전통, 인종과 세계화, 로컬과 글로벌 세계가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음식을 둘러싸고 교차하는 양상에 주목하였으며 이주자들을 단순히 음식에 적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와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용하는 ‘주체’ 혹은 ‘행위자’로 상정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실천과 행위가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왔다.

증가하는 이주와 음식,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자들의 음식 공간에 관한 연구(Charon Cardona 2004; Diner 2001; Hage 1997; Saber and Posner 2013; Ray 2004), 음식을 통한 선주민과 이주자 집단의 상호교류(Beyers 2008; Caplan et al 1997; Frost 2008; Hannerz 1987; Harbottle 2000; Jamal 1996; Tuomainen 2009), 음식

과 성별 또는 젠더에 관한 연구(Counihan and Kaplan 1998; Pilcher 1998; Waeismantel 1988), 음식을 통한 초국가적인 공간 및 공동체의 형성(Abbots 2011, 2012a, 2012b; Durand et al 1996; Starathenr 1988; Vasco 2011), 이주자들의 음식 활동과 몸(Abbots and Lavis 2013; Ben Ze'ev 2004; Carsten 1997; Sutton 2001) 등의 주제들로 세분화 되었으며 그 외에도 전통,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주제와 음식의 상관관계, 서로 다른 연령과 인종 집단 간의 비교연구 등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비교연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주 집단과 선주민 집단 간의 비교(Butterworth 1972; Wang et al 2011)와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인종집단 간의 비교(J Prescott et al 2002; Spindler and Schultz 1996) 등의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이들의 관심은 이주자들의 음식 관련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이주자들의 식생활 전반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인식(선호 또는 거부)과 같은 선택의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 유학생의 음식 실천과 관련된 해외 연구들(Brown, Edwards and Hartwell 2010; Corcoran 2018; Wu, Garza and Guzman 2015; Yan and Patrick 2016)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식과 이주자 커뮤니티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측면, 즉 유학생 커뮤니티와 음식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 검토에서 나타난 이주연구에서 음식이 이주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 및 존속 그리고 집단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전반적인 논지를 유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 유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어떠한 음식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유학생 집단 내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 활동이 유학생 집단의 유지와 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유학생’은 단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출신국의 음식 문화와 관습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와의 접촉과 충돌을 통해 적응, 타협, 변화 등의 다양한 실천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이주자²⁾’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국내 이주 커뮤니티와 음식 관련 연구

앞 절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음식은 국외 이주자들에게 이주 이후 낮은 환경을 가장 빈번하게 인식하게 하고 일상적인 갈등과 동화를 경험하는 문화적 매개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의 국외 이주 현상에서 개인과 커뮤니티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한국의 국외 이주자들의 음식 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는 먼저 실천 주체(대상)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외 이주자들에게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이정숙(2017)과 정선옥·양숙자(2015)의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문화적응 유형을 통합, 주변화, 동화, 분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최병두(201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를 음식-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 가정에서 음식 문화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다중적이고 혼종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이며,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장소성) 가정의

2) 초국가적 이주자(transnational immigrant) 또는 초이주자(transmigrant)란 자신의 삶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는 다수의 지속적인 상호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국민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Glick Schiller, Bach, and Blanc 1995).

사회공간적 관계를 재구성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음식-네트워크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화 과정에 참여하는데, 긴장과 갈등, 타협과 조화가 교차하는 권력의 장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한다.

이주 노동자의 음식 실천에 관한 연구도 여럿 존재하는데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 문화 유지행동을 분석한 윤영삼(2015)의 연구나 이태정(2019)은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분석은 노동자들의 음식 실천이 그들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한국인들과 충돌하기보다 ‘한국인이 떠나버린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음식과 식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유학생의 음식 실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내 유학생 중 중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반영한다. 박혜진·허은실(2013)의 연구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와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 외에도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적응도를 영양학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가 존재한다(하귀현 2009; 이찬 2010; 문상정·송정선 2012). 중국 유학생 관련 연구 외에는 무슬림 유학생(황병하 2010), 아랍 유학생(송경근 2018),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 유학생 전반(홍경희·이현숙 2019)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이나 식습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유학생들의 한국 음식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출신국 음식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적 경계 넘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유학생들을 단순히 동화의 ‘대상’ 또는 한국 문화의 ‘수용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자 집단에서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주요 이주 집단인 유학생들에 집중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유학생의 수는 전체 외국인 수(205만 명)중 외국인근로자(52만 8천명)와 결혼이민자(16만 6천명)의 뒤를 잇는 14만 2천명으로 집계 되었다. 수적으로 보아도 외국 유학생들은 결혼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일 뿐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거나 귀국 후에도 한국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초국가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해나가는 이주자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이외에 최근 급증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나마 존재하는 유학생 관련 연구도 한국 음식 적용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기존 연구들의 학문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본 연구는 ①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 ② 단순히 한국 문화 적응의 대상이 아닌 음식을 통해 정체성과 공동체의 지속 및 유지를 실천하는 주체이자 행위자로서의 유학생 ③ 종교와 음식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무슬림 집단(인도네시아)과 비무슬림 집단(베트남) 비교를 통한 커뮤니티의 지속성 고찰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참여·관찰,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식을 통해 이들이 거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 관련 활동과 해당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또한, 두 국가의 이주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 중 한 집단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한국에서 경험하는 음식 문화 갈등의 주요 요인은 종교와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내 무슬림들의 음식 문화 갈등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가 가능하며 국내 무슬림 중 동남아시아 출신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주 관련 선행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활동 및 경험

이 연구의 대상인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수는 총 52명이다.³⁾ 이는 학위과정생으로 학부과정생 6명, 대학원생 35명과 비학위과정으로 어학연수생 7명, 교환학생 4명을 포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개인 및 소모임 단위의 활동과 함께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에 소속되어 유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학생회는 현재(2019년 12월 기준) 약 35명이 가입되어있으며, 신입생환영회, 졸업생 환송회 등의 행사를 주최한다. 단체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주로 소통하며, 한국 생활 정보, 학교 행사, 안부 인사 및 근황 등이 소통 주제이다. 소통은 음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 할랄 음식점에 대해 평가하고 할랄 식당에서 제대로 된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할랄 식품 재료 판매처를 공유하거나 단체 주문한다. 서울대학교가 주최하는 행사 중 유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3)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2019년 4월 1일 집계 기준

인도네시아 음식을 만들어 팔 인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전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단체도 있다. 단체의 이름은 Perpika(Persatuan Pelajar Indonesia di Korea, 인도네시아 학생 연합)이며, 한국에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명단은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유한다. 대사관에 Perpika의 모임 장소가 있을 만큼 학생 자치회이자 관변단체적 성격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Perpika 내부에 APIK(Asosiasi Peneliti Indonesia di Korea, 인도네시아 연구자 모임)이라는 단체도 결성됐는데, 이 단체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중 연구자들을 위한 단체이다. 두 단체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며, Perpika의 경우 현재 약 6,000여명이 가입되어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할인 항공권, 관련 행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루피아(Rupiah), 달러, 원 등의 환전을 하기도 한다. 유학생회에 소속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혼자 한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가족 단위로 온 이들도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국외 이주자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야기하는 문화·환경적 요인으로는 언어, 기후, 학습 문화, 음식, 종교 등이 있다. 이 중 언어와 기후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극복하는 갈등 문화 요인이다. 먼저 언어는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대중가요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학당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한국정부초청장학생(KGSP,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의 경우 입학 전 1년간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능숙한 영어와 기본적 한국어 구사 능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언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간혹 수업에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터뷰 답변도 있었다.

연구가 진행된 시기였던 10월~12월은 한국의 기후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며 추워지는 시기였다(2019년 10월 - 2020년 1월).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의 낮선 추운 날씨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었다. 인터뷰의 첫 질문은 주로 날씨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가을, 겨울 날씨에 대한 질문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도 너무 춥다’, ‘날씨가 추워서 주로 방에만 있다’는 등으로 답변했지만, 스케이트나 스키를 타러 가는 등 인도네시아에는 없는 겨울 날씨를 즐기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유학생으로서 학습 문화 차이도 경험했다. 이들이 낯설게 느낀 한국의 학습 문화는 이른바 ‘면학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였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 문화에 대한 갈등은 ‘한국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 ‘한국 학생들은 방학에도 도서관에 다닌다’, ‘한국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한다’ 등의 인터뷰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는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에게 바로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일부는 한국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차별’이라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 가운데 여러 오해가 반복되며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는데 더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이처럼 다른 학습 문화는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는 이들의 경우 언제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학습 문화에 대해 ‘성실, 부지런한’ 등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서두른다, 빨리 해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등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갈등이 예상되는 문화 요인 중 음식은 다른 요인에 비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식 문화 갈등은 종교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한다. 이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활동 및 경험은 종교(주로 이슬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과 종교를 함께 논의한다. 먼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음식 문화 관련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함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1. 음식 관련 인도네시아 유학생 활동 소개

음식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활동은 크게 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세 활동은 요리, 교내 식당 이용, 그리고 외식(교내 식당 외)이다. 먼저 직접 요리하여 음식을 먹는 경우,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간단한 즉석 식품의 요리부터 채소, 고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비교적 복잡한 종류의 요리까지 해먹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올 때와 방학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올 때 간편한 음식과 향신료 등을 가져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삼발(Sambal, 붉은 고추, 강판에 간 양파, 라임, 오일, 식초를 섞어 만든 인도네시아의 양념)로 대표되는 향신료가 발달해있는데,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삼발을 비롯한 향신료들을 미리 충분히 사두고 어느 음식에나 첨가하여 먹었다.

무슬림 학생 중 할랄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은 이태원 등에서 할랄 음식 재료를 주문·배송하여 요리했다. 요리를 즐겨 하는 이들은 간혹 한국 음식 요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주기적으로 한국 음식을 요리하기보다 특별한 경우에 경험해보는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혼자 먹기 위한 요리부터 소모임(5명 이하)을 위한 요리, 그리고 여러 명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요리까지 다양한 양의 요리를 했다. 소모임은 요리를 잘하거나 즐겨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으로 교내(서울대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이 장에서 소개하는 음식 활동의 세 방식 중 자주 선택되는 활동 방식은 아니었다. 교내 식당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데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야기하는 대표적 요인은 할랄이다. 교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중 할랄이 아닌 재료(주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 종류는 드물었으며, 엄격하게 할랄을 따르는 이들은 재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리 방식 등에서 할랄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는 한 교내 식당에서 할랄음식을 제공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 따르면, 할랄 교내 식당의 메뉴가 너무 한정적이며, 가끔 나오는 인도네시아 요리는 ‘진짜 인도네시아 음식’의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할랄 음식 수요자들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오기 때문에 중동 음식이 나온다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음식일 뿐이었다. 또한 할랄음식을 제공하는 교내 식당과 거리가 먼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이동하기 불편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교내식당보다는 직접 요리하여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가,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등의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주요 음식 문화 활동은 외식이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기 전, 드라마,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있었다. 외식을 위한 음식 종류 선택에는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수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의 요리를 소개하거나 먹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소개하는 식당에 찾아다니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외식 음식 종류는 치킨 등 닭을 이용한 요리와 떡볶이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한국 음식의 ‘매운 맛’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경우 한국 음식의 매운 맛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음식도 매운 음식이 많기 때문인데,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 음식이 전체적으로 싱거워서(맵지 않아서) 처음 3개월 정도 음식을 먹을 때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또한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기 위한 외식도 했다. 인도네시아 음식점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지역과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신촌 등에 위치해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기 위해 안산을 자주 방문했다. 또한 안산에는 인도네시아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함께 안산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관광객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에는 상대적으로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개인, 혹은 소모임 단위로 경험하는 음식 활동은 단체의 음식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인도네

시아 유학생회는 전체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한 가지 이상 준비한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온라인 단체 소통 창구(카카오톡)를 통해 교내, 혹은 교외에서 개최되는 음식 요리 대회 등에 참여 인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연구 기간 중 있었던 2019년 11월 9일 열린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모임(참여관찰 2)에서는 피자과 박소(Bakso, 완자 모양의 어묵 류 인도네시아 음식), 기타 주전부리 등이 준비되었다. 피자는 할랄 피자를 주문했는데, 서울대학교 근처에는 할랄 피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명동에 위치한 할랄 피자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위치한 모임 장소까지 배달 시켰다. 박소는 가족생활관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구성원이 직접 요리하여 준비해왔으며, 모임 장소인 다목적실의 주방 기구를 활용하여 데워먹었다.

이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온 구성원은 본인과 다른 구성원들의 말에 따르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전체 모임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음식을 요리해오는 역할을 맡는다고 했다. 또한 주방 시설이 있는 가족생활관에서 살기 때문에 자주 인도네시아 음식을 하여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초대한다고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가족생활관 냉장고에 ‘인도네시아 음식 재료가 가득 차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이 모임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구성원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4~5가지의 인도네시아 향신료(Sambal, Saus Manis, Bumbu 등)를 피자과 박소에 첨가하여 먹는 점이었다. 한 구성원은 피자를 삼발에 찍어먹으며 ‘이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 방식’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요리해먹은 인도네시아 음식인 박소에 관해서는 ‘진짜 박소 맛’이 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는 구성원들이 많았다. 한국인인 참여 관찰자에게 ‘다음 기회에 제대로 된 박소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한국 인도네시아 학생 유학생회 Perpika에서는 1년에 1-2회 전체 학생 및 외부 초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 개최 시기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 혹은 르바란(이슬람력 10월인 사왈[Syawa] 1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의 명절)기간이다. 이 행사는 주로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개최되며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뷔페식으로 대접한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이 행사에 외국인(한국인 포함) 친구들을 초대하여 인도네시아 음식을 소개하기도 한다.

2. 음식 관련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경험

(1) 이슬람과 음식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동 중에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이슬람)였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대다수인 약 87%가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으며,⁴⁾ 이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모두 무슬림(Muslim, 이슬람 신자)이었다. 11월 9일 열린 인도네시아 학생회 모임에서도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으며, 발리 출신의 힌두교 신자 한 명과 개신교 신자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한 명, 총 두 명만이 비(非)무슬림 신자였다. 반면, 한국에는 외국인 포함 무슬림 수가 약 20만 명이 있으며, 이 중 한국인 신자는 약 3만 5천명으로, 이슬람교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 종교이다.⁵⁾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 문화는 낯선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4)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2010년 발표 자료

<https://sp2010.bps.go.id/index.php/site/tabel?tid=321&wid=0> (검색일: 2019/12/30)

5) 한국일보. 불편한 시선, 불안한 공존... 한국에 무슬림 20만. 2015/01/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1240466748419>(검색일: 2019/12/31)

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김민경 2012).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종교로 인한 갈등과 차별이 일상화되어있었다. 이슬람 사원, 할랄 음식점, 기도실 등의 부족과 같이 신앙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 학생들이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데, 이는 무슬림 여성들 중 일부가 착용하는 질밥(Jilbab,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쓰는 쓰개 ‘히잡’[Hijab]이라 부르기도 한다)으로 인해 외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한국말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아마 친구가 쓰고 있던 질밥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아요. (B, 2019/11/15).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에게 전도용 홍보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질밥을 쓰고 있는데도요. 함께 나눠준 물티슈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질밥을 쓴 사람에게도 전도를 시도하는 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참여관찰 1, 2019/10/01).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문화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에게 익숙한 문제였다. 위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적 문화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극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의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낯선 문화이다. 위 인터뷰 답변에서 나타나듯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이슬람에 대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변칙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음식 문화(할랄)를 포함하여 이슬람 종교 활동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일상에서 할랄 실천 방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방식 역시 개인 신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할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할랄이 뭔지 배웠어요. 여전히 잘 몰라요. ... 저는 그냥 돼지고기만 아니면 다 먹는 편이에요. 제가 먹는 음식 중에 할랄이 아닌 음식도 있겠지만, 이게 이슬람 율법을 크게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무슬림 학생들은 저와 비슷할 거예요. (D, 2019/11/19).

한국에서 할랄 음식점 중에 몇 군데는 할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할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할랄 음식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 기숙사에 사는 다른 무슬림들과 이태원 할랄 식료품점에 정기적으로 재료를 구매해서 배달시키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나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불편한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있게 해준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B, 2019/11/15).

이처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음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주로 종교적 요인(할랄)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무슬림이 할랄을 지키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할랄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황에 맞춰 타협적으로 할랄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수준의 할랄은 지키고 있었다. 할랄을 비교적 엄격하게 지키는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랄을 지키고 있었는데, 직접 요리하여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가, 다른 무슬림과 할랄 식재료, 음식 등을 주기적으로 단체 구입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한대로, 서울대학교에는 할랄 음식점이 한 군데 있지만, 낮은 음식 종류와 음식의 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겪는 음식 문화 활동 어려움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했다.

(2) 개방성

앞서 서술했듯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대부분은 종교적 요인으로 음식 활동에 수동적이고 위축되는 모습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음식 활동은 전체적으로 폐쇄적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단체 단위(소모임, 유학생회 등)에서는 개방적인 음식 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외국인(한국인)인 연구자를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단체의 음식 모임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가 성사되어 참여관찰로 이어졌다. 단체 음식 모임의 참여관찰에서 가장 주목된 점은 단체의 기존 구성원이 아니던 외부인이 다양하게 초대되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모임(참여관찰 1)에서는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 생활 전반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도 초대되었으며 유학생회 구성원들의 다른 국적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교환학생, 신입생 등 처음 유학생회 모임에 참여한 구성원들도 있었다. 이 모임은 처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음식을 함께 먹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 모임에서 준비된 음식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음식이었는데 유학생회 구성원(인도네시아인)들이 다른 국적의 참여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음식을 소개하고 먹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다가오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음식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화는 출

신국과 출신 지역, 한국 생활 등으로 대화 주제가 확장되었다. 이처럼 참여관찰을 통해 처음 참석한 구성원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모임에 참석한 다양한 구성원



이처럼 외부인과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을 매개로 단체 활동에서 편하게 어울리는 개방적인 모습은 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유학생회 전체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단체 활동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모임, 인터뷰 등을 통해 만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음식 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였으며, 이러한 초청에 의해 실제로 몇 차례의 음식 모임이 성사되었다. 그 중 하나의 모임이 2019년 12월 29일 명동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있었던 소모임(참여관찰 3)인데, 이 모임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친해지길 바란다’며 다른 한국인도 초대됐다.

이 모임에서도 처음 만난 구성원들이 어울리는 매개는 음식이었

다. 음식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음식 관련 경험을 공유했으며, 한국에 위치한 다른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음식 모임에 외부인 참석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문화에서는 이질적인 외부인의 참석에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기존 소모임 구성원들은 외부인의 참석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부인의 참석으로 새로운 대화 주제를 형성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전체 유학생회인 *Perpika*도 대사관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비롯하여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초청되어 교류한다.

*Perpika*는 매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8월 17일)에 대사관에서 행사를 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폴란드에서 온 친구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음식이 먹고 싶어서 왔대요. 올해 행사에는 당신(연구자)도 올 수 있어요. (H, 2020/01/05).

이 외에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종교 행사에 초대되거나 인도네시아 음식을 요리해먹는 가정 모임에 초대되는 등 연구자는 인도네시아 음식 관련 단체 활동의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음식 문화의 개방성은 한국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김형준 외 2017).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음식 문화 활동의 제약과 개방적인 음식 문화 활동을 함께 고려하면, 종교적 음식 제약을 지키면서 개방적인 음식 문화의 실천은 출신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모순되지 않는 특성이지만 한국에서는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운 이질적 특성으로 작용하며 서로가 충돌하거

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단절성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강제적인 음식 문화와 개방적 집단 음식 문화로 상징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음식 활동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유학생회는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회들에 비해 교내에서 주최하는 세계음식축제, 전통문화 교류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유학생회는 주로 온라인 공간(카카오톡 등)에서 소통하는데, 온라인 소통을 통해 함께 음식을 먹는 소모임을 조직하거나 음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학교 단위 유학생회나 전체 유학생회인 Perpika를 통해 인도네시아 음식을 공수하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학생들 중 수하물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무게 단위로 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이동해주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주로 요청하는 물건은 생필품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즉석식품 등의 음식 등이었다. 이 때 배송을 요청하는 음식의 종류는 주로 라면이나 할랄 스낵과 같은 즉석식품과 전통 향신료 등이었다.

한국에 인도네시아 식당이 새로 생기면 누군가 그 정보를 카카오톡에 올려줘요. 아니면 한국 식당 중에 맛있는 식당을 추천하던가. 그럼 시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요. 또 카카오톡에서 인도네시아 식당 음식 맛을 평가하기도해요 ... 어떤 사람은 한국에 한 할랄 식당이 제대로 할랄을 지키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 식당 명단을 만들어 올렸어요. (A, 2019/10/18).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카카오톡에 ‘집 몇 키로 운송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와요. 제가 직접 인도네시아를 가지 못할 때 인도

네시아 물건이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종종 활용해요. 저는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주문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용돈 별이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H, 2020/01/05).

그러나 이처럼 음식을 매개로 한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단절적 속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절성은 한국으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한국에 정착하기보다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이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계약조건에 의해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면 취업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종교 생활(이슬람)로 인한 어려움이 크죠. (H, 2020/01/05).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귀환에 따른 단체의 시기적 분절 및 단절적 운영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제도적 측면(임금 수준, 구직 등)이지만, 음식을 비롯한 문화적 요인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가며 재학생들은 졸업 이후 한국 정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워지며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한국에서 낮은 정착률로 인해 유학생회는 단절적으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 당국과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장려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의 단절적 운영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불안정한 정착에 대

한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네시아 당국과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유학생 단체인 Perpika와 연구 유학생 단체인 APIK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사관 내 장소를 마련해주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상으로 언급한 세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종교적 요인에 의한 한국에서 음식 문화 실천의 제약은 이와는 대조적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개방적인 음식 문화로 어느 정도 보완되지만, 이질적 특성의 보완이 졸업 이후 한국 정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수준으로 극복하지 못하며 커뮤니티 운영의 단절성을 초래한다.

<그림 3> Joko Widodo 대통령의 한국 방문 중 제안으로 조직된 APIK



출처: APIK 페이스북⁶⁾

6) [facebook.com/forumAPIK/photos/a.104834587660762/104834560994098/?type=3&theater](https://www.facebook.com/forumAPIK/photos/a.104834587660762/104834560994098/?type=3&theater), (검색일: 2020/03/13)

IV. 베트남 유학생의 음식 활동 및 경험

2019년 기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의 수는 총 65명이며 학부생 2명, 대학원생 46명 (석사과정 31명, 박사과정 15명), 연수과정생 17명으로 대학원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⁷⁾. 베트남 유학생들의 성별과 나이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2-30대의 젊은 층에 속한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 출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한국에 오고 나서 베트남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일정한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어를 매우 빠르게 습득하였으며 한국 생활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은 한국어 수준이 매우 뛰어나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만 인터뷰를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한류의 영향 덕분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친근감을 표시했으며 한국 드라마나 K팝과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베트남 유학생들 역시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거나, 한국 마트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경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크고 작은 도움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학구열이 높고, 많은 시간을 학업과 취직 관련된 활동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 베트남과 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한국 학생들

7)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2019년 4월 1일 집계 기준

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자신들(베트남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게으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과 한편으로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경쟁심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 학생들 또는 베트남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대학원과는 달리 주로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학부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인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9년 2학기에 학부에 입학한 한 베트남 여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지 3달 정도 된 시점에서 자신이 한국어를 할 수 없고 영어로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자신과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베트남 유학생회(VSA_SNU, Vietnam Student Association in SNU)는 설립 된지 약 5년 된 단체로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⁸⁾에 따르면 약 400명가량의 가입자가 있다. 이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가 65명임을 감안할 때 설립 이후 매년 약 80명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회 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수는 약 70명가량 된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는 매년 한국 베트남 유학생회와 함께 베트남 유학생 운동회나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조직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2-3회 가량의 축구 시합을 개최한다. 음식 관련 행사는 매년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두 번째로 큰 명절인 추석에 총 2회 진행되는데, 이때는 유학생회에서 학교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베트남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한다.

8) <https://www.facebook.com/groups/158190230868741>

<그림 4> 2020년 설맞이 행사에 참여해 함께 음식을 먹는 베트남 유학생들



출처: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

1. 음식 관련 베트남 유학생 활동 소개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에게도 역시 음식은 한국에서의 유학생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학생화를 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각각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만들고 참여하는 등의 실천도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음식 활동의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맞아 1년에 1-2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 기간에는 참여관찰이 불가능했다. 연중행사로 진행되는 이러한 음식 활동은 물론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나 가끔 열리는 공식 행사 보다는 일상에서 규칙적이고 자주 일어나는 소규모의 음식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네트워크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실천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에 제약이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다르게 한국 음식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대부분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교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말 보다는 평일에, 저녁 보다는 점심에 교내식당에 많이 가는데 이는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학생들처럼 시험기간이나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사먹기도 한다.

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가끔 혼자서 베트남 음식을 해 먹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부분 요리를 할 줄 알지만, 숙소에서 자주 요리를 해먹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요리를 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구하고 장을 보는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것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체로 혼자서 직접 요리를 해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의 메뉴 역시 매우 다양하지만 베트남 음식 보다는 삼겹살이나 치킨 등 한국음식을 선호하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 음식을 해먹는 것 이외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특별한 날이나 음식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단체로 베트남 음식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단체 음식 관련 활동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베트남 유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있고 두 번째로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음식을 해 먹는 자체 활동이 있다. 1년에 2회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베트남 유학생회의 활동 이외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은 스스로 음식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여서 베트남 음식을 해먹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음식 관련 행사의 경우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회에서 1년에 한번 진행되는 국제음식축제나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한울제가 있다. 해당 행사들은 모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심 있는 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형태로, 재료 구입 지원금과 텐트와 테이블, 의자, 가스버너, 물,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이 참가팀에게 제공된다. 각 팀은 행사 기간 중 판매한 음식 수익의 일정 부분(약 90%)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기 음식 부스로 선정된 팀에게는 10~15만원의 상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2019년 10월 1일에 열린 관악사 한울제에서는 약 10개국 이상의 팀이 글로벌 푸드 부스에 참여했으며 베트남도 그 중 한 부스를 차지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유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상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듯 보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열심히 판 음식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음식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 이외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은 삼삼오오 주변의 친구들과 주말이나 명절 기간에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여 베트남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 주로 기숙사나 교내 숙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의 규모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 정도로 제한된다. 기숙사에서는 공용 주방을 사용하며 외국인과 교원 전용 숙소인 BK생활관이나 기혼자 전용숙소인 가족생활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유학생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이 실제 음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2. 음식 관련 베트남 유학생의 경험

(1) 자율성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일부 유학생들은 베트남 음식의 맛이 한국과 유사하다며 한국 음식에 대한 친근감과 익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음식 진짜 잘 먹었어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지금도 다른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마 불편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베트남 친구들) 대부분 매운 거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음식이 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한국음식 건강하고 영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모든 거 잘 먹어요. (I, 2019/10/26).

저에게는 한국 음식이 (먹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J, 2019/11/14).

나는 (한국음식에) 쉽게 적응했어요. 모든 한국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매운 음식만 빼면요. 제 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제 생각에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제 말은 먹기 쉽다는 뜻이에요. 한국음식이랑 베트남 음식은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짜고. 처음에 김치는 좀 먹기 힘들었어요. 맛이 너무 강해서요. (M, 2019/12/11).

한국 음식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음식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고 너무 매운 음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교내 식당을 이용하는 데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명석(2017)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도 큰 불만을 지니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바쁜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처럼 편의점에서 한국의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는 경우도 많았다.

근데 가끔씩만 베트남 음식 해먹어요. 대부분은 그냥 한국음식 (먹어요). 학생 식당에 가서... 아니면 편의점에 인스턴트 있잖아요. 그냥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거 사서 (먹어요). (I, 2019/10/26). 저는 대부분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학교) 밖에서 파는 음식 이랑 비교했을 때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싸잖아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가끔 근처에 베트남 식당가서 사먹기도 해요. (M, 2019/12/11).

혼자서 직접 베트남 음식을 해 먹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온 지 최소 2년 이상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보니 한국 음식에 질리거나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서 스스로 만들어 먹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베트남 음식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들어 먹어요). 그리 우니까. 그리고 그냥 한국 음식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가끔 음식 반찬 좀 바꿔야지. (그래서) 베트남 음식 해먹어요. (I, 2019/10/26).

베트남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 베트남 음식 먹어요. 걔네들은 베트남 음식이 그리워서 그래요. 집도 그렇고. 사실, 한국 음식만 너무 오래 먹다보면 좀 재미없어요. 베트남 음식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음식은 베트남

음식에 비해서 맛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한국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그렇죠. (J, 2019/11/14).

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 음식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들의 경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과는 달리 베트남 유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 음식 중에서 매운맛은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에 속하며 매운맛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은 한국 음식 중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들은 매운맛을 제외한 다른 한국 음식에 대해 매우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스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온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 학생들이 베트남 음식을 먹는 이유는 강제적이라기보다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음식을 질릴 정도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베트남 음식을 찾게 된 것이다.

유학생들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율성’은 음식 관련 단체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음식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제의를 해 오면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고 활동을 진행하는 편이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주로 주말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생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가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베트남 음식 만들어요.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요). 그냥 시간이 편할 때. 주말에. 평일에는 다들 수업 들어야 돼서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주말에 시간이 편해서 (모여요). 베트남 음식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기도 조금 힘들어요. 보통 다섯 명이나 일곱 명 정도 모이고 냄(튀긴 스프링롤)이랑 국수 같은 거. 쌀국수도 만들어요. (I, 2019/10/26).

명절이나 누군가의 생일날, 크리스마스... 아니면 한국 공휴일 같은 때에 같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한국 공휴일에 우리도 쉬는데 할일이 없으니까. (J, 2019/11/14).

이와 같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음식에 대한 제약이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달리 음식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 모임 역시도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음식이 한국 사회에서 초기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해서 이들이 본인들만의 음식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할랄’ 음식이라는 제약을 받는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다르게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은 오히려 다른 관점으로 해당 문화적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즉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잘 적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 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음식 활동을 하는 이유와 이들의 음식 활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달힌’ 공동체성

자율성 다음으로 베트남 음식 관련 단체 활동이 지닌 두 번째 특징

은 ‘달린 공동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음식 특정 집단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들로부터 소개되어 왔다. 베트남인들에게도 음식을 만들고 같이 나누어 먹는 행위는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은 음식 활동에서 함께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같은 베트남 출신 선후배 및 동기들과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교류하면서 유학생활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은 베트남인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다른 베트남인과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베트남 친구들이랑 학교에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친구 있으면 한국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냥 사생활? 요즘 어떤 문제 있는지 그냥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고민이 뭔지 그런 이야기해요. 다 베트남어로 대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저는 친한 한국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할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어요. 아무튼 다른 언어 때문에 그 친구가 나중에 베트남어 너무너무 잘해도 베트남 친구한테 제대로 100% 이야기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어로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요. (I, 2019/10/26).

밖에서 먹는 거랑은 달라요. 음식 같이 만들고 먹으면 좀 뭔가 더 친한 느낌 들어요. 그냥 가족처럼?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당연히 그냥 앉아서 먹잖아요. 그래도 그 분위기 좀 달라요. (I, 2019/10/26).

제 생각에 그거는 베트남 문화예요. 우리는 항상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저녁이나 점심을 항상 모여서 나누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단지 음식 때문은 아니예요. (M, 2019/12/11).

왜냐하면 사실 식사할 때 목적은 먹는 거 아니고 저희의 이야기, 지났던 거, 슬픈 거, 재미있는 거, 기쁜 거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런 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L, 2019/12/11).

사실 음식을 나눠먹는 문화는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는 행위를 ‘베트남 문화’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과 그 행위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베트남인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개인과 집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로 인식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어를 통해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로 인해 베트남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 된다. 즉,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어를 하며 베트남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는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끼는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이 곧 지극히 ‘베트남’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의 단체 음식 활동이 지닌 ‘자율성’과 ‘공동체성’이 반드시 ‘개방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베트남 유학생 수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음식 관련 활동은 주로 이미 서로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 즉 일정한 라포를 쌓은 학생들끼리 진행된다. 인터뷰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신이 이는 단체 음식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밝혔다.

음식 모임에서는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11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같은 사람들이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해요?) 아무나는 아니예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들은 이미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이 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은 항상 같이 모이고, 저 그룹은 항상 같이 모이고... 이 모임(사람들)은 저 모임(사람들)을 절대 부르지 않아요. (J, 2019/11/14).

연구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I: 가끔요. 근데 딱 한번 (웃음).

연구자: 그럼 일종의 폐쇄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 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하고 근데 성격이 안 맞고 어울리지 못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I, 2019/10/26).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음식 관련 모임 및 활동이 ‘공동체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새로운 구성원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열린’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서로 친밀성을 다소간 구축한 사회적 관계의 기초 위에서 이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는 ‘닫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음식의 역할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이어주는 촉매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 즉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음식 모임에서 각 구성원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있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과 자신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 및 재확인 하는 경험을 하며 음식 모임이 지속될

에 따라 모임 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폐쇄성은 더욱 짙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베트남 음식 관련 모임이 지닌 ‘폐쇄성’은 한편으로 연구자가 이들의 모임에 참여하는데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총 7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매번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이들의 음식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들 역시 인터뷰 이후 모임 기회가 생기면 연구자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인터뷰 이후 이들 중 연구자에게 음식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인 이자 외부인인 연구자가 해당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마땅히 ‘친밀함과 편안해야 할’ 이들의 모임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3)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

이상에서 보았듯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은 ‘자율성’과 ‘단한 공동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과는 대조되는 베트남 유학생들만의 특수한 성격인데 그 특수성은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의 지속성과 연결된다. 베트남 유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베트남 유학생회 활동이 단순히 대학교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공간적인 접근으로 보았을 때 유학생 커뮤니티의 네트워크와 이들의 활동은 학교 밖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뻗어나간 상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베트남 유학생은 베트남 현지에서 자신이 서울대 입학 통지와 장학금 합격 소식을 받았을 당시 한국에 있는 서울대 유학생회에서 연락을 받았던 상황을 언급했다.

베트남에 있었을 때부터 회장님이 연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런 이름을 적어놓고, 여기저기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대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연락해가지고 이런 홈페이지, 이런 그룹이 있다. 알려주고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힘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입해서 같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저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이번에는 장학금 받아서 올 거라고 (하면) 먼저 컨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L, 2019/12/11).

위의 학생은 서울대의 국어국문학과 입학과 동시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학생의 이름은 해당 장학금을 주는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대사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다. 서울대 유학생회는 직접 이상과 같은 장학금 홈페이지나 대사관을 통해서 입학하게 될 유학생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리 사전 연락을 취해 서울대 유학생회의 존재를 알린다. 해당 학생은 유학생회를 통해서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도움을 받고 최소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위 학생의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유학생회의 혜택을 입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학교 입학 후 유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예비 유학생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일을 돕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신입생-재학생 간의 네트워크가 유학생회를 매개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베트남 유학생회의 활동은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베트남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연구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

었다.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유학생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때로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결고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베트남 유학생회의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베트남 유학생회에서 우리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정도 만나요. 보통 설날이랑 추석, 그리고 개강할 때 모이는데 한번 모이면 보통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졸업했던 사람들도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술 마시고 우리 학교에는 선배들한테서 도움 많이 받아요. 그냥 지원도 대부분 서울대를 졸업한 후 다 좋은 직업 찾을 수 있어요. 월급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번 어느 분 500달러? 지원해줬어요 (선배들이랑) 친해요. 우리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있으면 선배들한테 이야기 하고 선배들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친해요. (I, 2019/10/26).

위 학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유학생회 활동에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한국 유학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회의 활동은 한국을 벗어나 베트남까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접근으로 보았을 때 대학 입학 전, 학업 수행 기간, 그리고 졸업 이후로 이어지는 신입생-재학생-졸업생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유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이상과 같이 오래 지속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물론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베트남 유학생회의 매우 체계적이고 뛰어난 운영 방식은 그 중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유학생회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그림 5>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AIEJ)과 서울대학교 베트남 총 유학생회 후원 협약식



출처: 베트남 유학생회 페이스북

때 베트남 유학생의 개인적 또는 단체적 음식 활동이 이러한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베트남 유학생은 인도네시아 학생에 비해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해외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食)’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귀국보다는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학생들 역시도 졸업 후의 계획을 물었을 때 베트남에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서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 단체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본인과 잘 맞는 제한된 인원의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폐쇄적인 성격의 음식 활동은 이들이 진지하고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 유학생 네트워크는 이렇게 소규모 인원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발적인 음식 활동과 일 년에 한 두 번 대규모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활동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지 및 재구축됨으로써 그 지속 및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유학생 개인의 음식 실천의 특수한 성격과 유학생 집단의 특수한 음식 실천은 인도네시아 학생들과는 구별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갖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두 국가의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런 활동이 유학생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두 국가의 유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유학생들이 거주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의 비교를 통해 음식 문화가 거주국에서 적응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 이주에서 출신국과 거주국의 음식 문화가 적응과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생활에서 음식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음식 문화가 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이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비해 한국 음식을 먹는데 있어 종교적 요인(할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이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었으

며, 할랄 음식에 대한 인식 재고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 및 단체의 차원에서 수정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접하는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에 비해 음식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같은 베트남 유학생들끼리 음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서로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관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차이점은 개방성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에 비해 음식 문화를 매개로 외부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음식을 매개로 형성된 모임에 외부인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수용하는 문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이슬람 음식 문화의 개방성은 기존의 이슬람 문화 또는 할랄 관련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커뮤니티의 개방적인 음식 활동 특성은 이슬람 문화를 생소하고 이질적인 문화로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 무슬림 내부의 결속력을 강조하고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슬람 이주자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인식 및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발견이다(이희수·조영주 2013; 안정국 2012).

반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음식 관련 활동은 이미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목적이 단순히 음식 자체의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에 담겨있는 사회적 의미,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서로간의 유대와 결속을 (재)확인 하는데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의 형성에 음식이 하나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음식 실천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성격은 베트남 유학생 관련 국내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지점이다.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관련 연구에서 음식은 유의미한 지표로 인식되지 않거나 베트남 유학생들은 타 국가 학생들에 비해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음식 관련 실천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미영 외 2018; 안진우 2019; 옹구엔띠란 2017).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유학생들의 음식 활동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도 두 집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환대의 문화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음식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졸업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특성으로 인한 단절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과 '달힌' 공동체성이 일정 부분 커뮤니티의 지속 및 결속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서술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의 음식 문화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하면 아래(<표 3>)와 같다.

<표 3>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 음식 문화 활동 비교

출신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통점	음식 문화 활동이 이주 생활 적응 및 갈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	
자율성	음식 문화 선택의 낮은 자율성 (종교적 요인(할랄)으로 인한 제약)	음식 문화 선택의 높은 자율성 (출신국과 유사한 음식에 대한 낮은 거부감)
개방성	개방적인 음식 문화 (외부인 참여에 개방적인 공동체성)	폐쇄적('달힌') 음식 문화 (음식 문화 활동을 공동체 결속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
지속성	유학생 커뮤니티 단절성 (음식 문화 등 한국 정착 어려움)	유학생 커뮤니티 지속성 (졸업 이후 높은 한국 정착률로 결속력 유지)

* 두 커뮤니티 비교를 통한 상대적 기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집단의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음식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기존 관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주자들의 ‘음식’ 관련 활동이 이주자들의 정체성 강화와 외국 생활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음식이 이주자 집단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음식과 정체성의 상관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의 음식 관련 활동이 단순히 출신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과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의 음식 실천이 이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속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정된 집단(서울대학교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비롯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음식 문화 실천이 이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비교는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상이한 이주 집단을 대상으로 음식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매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으로 인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는 미처 추적하지 못했다. 졸업 이후 이들이 자신의 거취를 선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커뮤니티와 어떤 연결과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초국가적 이주자로서 유학생의 실천을 검토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후속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주 양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이주 현상을 더욱 총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양미. 2017.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52(4): 435-455.
- 김미영 · 이유아 · 송연주. 2018. “베트남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과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4(1): 481-503.
- 김민경. 2012. “현대 한국의 이슬람 인식과 그 특징.”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수 · 이정현. 2017.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제의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 인증대학과 미인증대학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1): 295-315.
- 김형준 외. 2017.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과천: 진인진.
- 김효진. 2010.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문화 공유와 전파.” 『지리학 논총』 56: 25-48.
- 문상정 · 송정신. 2012. “중국유학생의 한식당 음식품질과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음식 인지도 차이를 중심으로.”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27(3): 285-293.
- 박상미. 2003. “맛과 취향의 정체성과 경계 넘기: 전지구화 과정 속의 음식문화.”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7(3): 54-70.
- 박혜진 · 허은실. 2013. “일부 중국 유학생에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와 의 관련성.”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6(2): 216-225.
- 서현정. 2001. “민족정체성의 새로운 상징으로서의 레스토랑 음식: 미국 보스턴의 이탈리아인 타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근. 2018. “아랍유학생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 9(1): 85-100.
- 안정국. 2012. “국내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문화적 갈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1): 25-57.
- 안진우. 2018.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국가별 비교연구: 중국, 베트남 유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명석. 2017. 외국인 학생의 대학 내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캠퍼스 내 할랄 음식 제공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고서
- 윤영삼. 2015.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문화유지행동: 모국문화유지행동의 긍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2(4): 165-186.
- 응구엔띠란. 2017.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광주 전남 지역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응웬 티 레나. 2014. “베트남 대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현황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 201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문화 적응 경험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2(2): 103-114.
- 이찬. 2010. “대전 지역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 『韓國食品營養學會誌』 23(2): 186-195.
- 이태정. 2019. “안산시 이주노동자의 문화생산활동과 문화적 공유지의 가능성.” 『IDI 도시연구』 (16): 211-227.
- 이희수·조영주. 2013. “무슬림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슬람 문화 실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1): 85-110.

- 이희수·조영주. 2013. “무슬림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슬람 문화 실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3(1): 85-110.
- 장안리. 2017. “국내 동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와 대응기제 방법-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 중심으로.” 『아태연구』 24(2): 101-141.
- 정선옥·양숙자.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및 식생활 관련 요인에 따른 식생활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 『한국자료분석학회』 17(5): 2675-2689.
- 최병두. 2017.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 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1- 22.
- 최병두. 2017.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1-22.
- 하귀현. 2009.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학술심포지움)』 12: 131-131.
- 홍경희·이현숙. 2019.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에 따른 한국 식생활 적응도 및 대학급식소 이용행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34(5): 553-566.
- 황병하. 2010. “무슬림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3(2): 59-05.
- Abbots, Emma Jayne. 2011. “‘It Doesn’t Taste as Good from the Pet Shop’; Guinea Pig Consumption and the Performance of Class and Kinship in Highland Ecuador and New York City.” *Food, Culture and Society* 14 (2): 205-224.
- _____. 2012a. “The Celebratory and the Everyday: Guinea Pigs,

- Hamburgers and the Performance of Food Heritage in Highland Ecuador.” *Celebrations: The Proceedings of the Oxford Symposium on Food and Cookery 2011*. London: Prospect Books: 12-23.
- _____. 2012b. “In the Absence of Men? Gender, Migration and Domestic Labour in the Southern Ecuadorean Ande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4(1): 71-96.
- _____. 2016. “Approaches to food and migration: rootedness, being and belonging.” *The Handbook of Food and Anthropology*. London: Bloomsbury. 115-132.
- Audrey A. Spindler, Janice D. Schultz. 1996. “Comparison of dietary variety and ethnic food consumption among Chinese, Chinese-American, and white American wome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13: 64-73.
- Beyers, L. 2008. “Creating Home: Food, Ethnicity and Gender among Italians in Belgium since 1946.” *Food, Culture and Society* 11(1): 7-27.
- Ben-Ze’ev, E. 2004. “The Politics of Taste and Smell: Palestinian Rights of Return.” *The Politics of Food*. M. Lien and B. Nerlich (eds). Oxford: Berg. 141-160.
- Brown, Lorraine, Edwards, John and Hartwell, Heather. 2010. “A taste of the unfamiliar. Understanding the meanings attached to food by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in England.” *Journal of Food Studies* 54(1): 202-207.
- Butterworth, Douglas. 1972. “Two Small Groups: A Comparison of Migrants and Non-Migrants in Mexico City.” *Urban Anthropology* 1(1): 29-50.

- Caplan, P. 1997. "Approaches to the Study of Food, Health and Identity." *Food, Health and Identity*, P. Caplan (ed.). London: Routledge. 1-31.
- Carsten, Janet. 1997. *The Heat of the Hearth: The Process of Kinship in a Malay Fishing Community*. Oxford: Clarendon Press.
- Charon Cardona, E.T. 2004. 'Re-encountering Cuban Tastes in Australia'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5(1): 40-53.
- Counihan, C.M. and Kaplan S. L. 1998. *Food and Gender: Identity and Power*. Amsterdam: Harwood.
- Diner, H. R. 2001. *Hungering for America: Italian, Irish and Jewish Foodways in the Age of Migration*.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urand, J. Kandel, W. Parrado, E. A and Massey D.S. 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Mexican Communities." *Demography* 33(2): 249-264.
- Frost, N. 2008. "'Strange People But They Sure Can Cook!' An Indonesian Women's Group in Sydney." *Food, Culture and Society* 11(2): 173-189.
- Gabaccia, Donna 1998. *We are What We Eat : Ethnic Food and The Making of Americ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nerz, U. 1987. "'The World in Creolization' in Afric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frica Institute* 57(4): 546-559.
- Harbottle, L. 2000. *Food for Health, Food for Wealth: The Performance of Ethnic and Gender Identities by Iranian Settlers in Britain*. New York and Oxford: Berghahn Books.

- Jamal, A. 1996. "Acculturation: The Symbolism of Ethnic Eating among Contemporary British Consumers." *British Food Journal* 98(10): 12-26.
- J. Prescott, O. Young, L. O'Neill, N.J.N Yau, R. Stevens. 2002. "Motives for Food Choice: A Comparison of Consumers From Japan, Taiwan, Malaysia and New Zealand."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3(7-8): 489-495.
- Lijun Wang, Zhenzhen Zhang, Ying Chang, Xian Wang, Mengjun Hou, Jun Wei, Wenhua Ling, Huilian Zhu. 2011.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Between Migrant and Local Adolescents in Shenzhe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4): 624-631.
- Corcoran, Nova. 2018. "Exploring International Students' Food Choices Using Photovoice Techniqu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 8(1): 175-193.
- Pilcher, J. M. 1998. *Que Vivan Los Tamales!: Food and the Making of Mexican Identit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Ray, K. 2004. *The Migrant's Table: Meals and Memories in Bengali-American Household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Ritzer, George. 1993.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Thousand Oaks, Calif. : Pine Forge Press.
- Saber, G. and Posner, R. 2013. "Remembering the Past and Constructing the Future over a Communal Plate." *Food, Culture and Society* 16(2): 197-222.
- Sutton, D. 2001. *Remembrance of Repasts: An Anthropology of Food*

and Memory. Oxford: Berg.

- Tuomainen, H.M. 2011. "Ethnic Identity, (Post) Colonialism and Foodways: Ghanaians in London." *Food, Culture and Society* 12(4): 525-554.
- Vasco, C. 2011.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on Agricultural Production Patterns, Labor Relationships and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Rural Ecuador*. Published thesis, Kassell, DE: Kassell University Press.
- Weismantel, Mary J. 1988. *Food, Gender and Poverty in the Ecuadorian And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u, Hsiao-ping, Garza, Esther and Guzman, Norma 2015. "International Student's Challenge and Adjustment to College."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2015: 1-9.
- Zi Yan and Kathleen Fitz Patrick. 2016. "Acculturation and health behavior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 qualitative approach."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8: 58-63.

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9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399&uappCd1=030202&menuId=m_02_03_01&itemCode=03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http://147.46.10.138/downloads?bm=v&bbsidx=127043&>

(2020.05.06. 투고, 2020.08.13. 심사, 2020.08.19. 게재확정)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od Practice and
Community formation of Southeast Asian
Students:**

**Focused on Indonesian and Vietnames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y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ood practic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overseas migrants communities. This study is focused on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latively marginalized in previous food and migration studies, especially those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growing rapidly in Korea. This study confirms that food practi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munity of international student, as previously claimed by relevant prior studies, and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Indonesia and Vietnam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in the case of Indonesian students, there are restrictions on food practice due to the religious factors, while Vietnamese students showed a relatively autonomous attitude toward Korean food. Second,

while Indonesian students have an open mind to use food gatherings as an opportunity to form new relationships with outsiders, Vietnamese students' food gatherings differ in that they are based on existing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significance of it li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longing, bond and solidarity with each other. Finally, the food practices mentioned above have also been found to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each community. While the Indonesian students community shows the discontinuity of operation focused on 'students in a campus', the Vietnamese students community shows continuity and expandability beyond time and spa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actice of food that reflects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a particular country can have a differe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a migration community as well as on their sustainability and settlement, and through the study of food practice by Vietnamese and Indonesian students, it has its significance in expanding existing migration, food and Southeast Asian-related research.

Key Words: Indonesia, Vietnam, Students studying abroad, community, food practice

